

제6기 최고지도자과정 현장견학기

김성우 수강생
(전남 강진 와보랑계박물관)

대전 고속버스정류장에서 9시 반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침 6시 못된 시각에 눈을 비비고 집을 나섰다. 나주에서 6시50분 고속열차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나주에서 일행을 만나 함께 차에 올랐다. 8시경 서대전역에 도착 해 택시에 올라 약속장소를 향했다.

약속 장소에는 몇 분이 이미 오서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랐다. 이번 현장견학은 강춘성 회장님도 함께 동행을 하셨나 보다. 반갑게 우리일행을 맞아주신다. 얼마 후 우리 도농녹색교류대학 제6기 최고지도자과정 수강생 30여명 일행을 태운 버스는 무주 수락마을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을이 가까워 왔음을 주위환경이 깨끗이 정비된 마을에서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앞 천변에 천여 평 너른 공간을 마련, 단장된 쉼터가 너무 좋았다. 나무그늘이 멋있게 단장된 수영장이 부럽기조차 하였다. 마을 지도자의 수고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산머루주 가공공장을 견학할 수 있었다. 젊은 사장의 가공공장에 대한 소개를 듣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했다. 인근에서 생산된 머루를 수매하여 가공공장을 운영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농촌이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싶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우리는 남원 달오름마을로 바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점심때가 좀 늦은 오후1시경 달오름마을에 도착

하여 밥상에 앉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특이한 것은 밥그릇이 아닌 바가지에다 밥을 담아 비빔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먹고 난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식사를 오랫동안 잊지 못하리라. 필자도 생전 이렇게 밥 먹기는 처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밖에 나와 마을을 둘러 볼 수 있었다. 깨끗이 단장된 식품 가공공장에 들어가니 고사리, 버섯 등을 건조하여 포장해 놓았는데 특이한 것은 무청까지 가공해 놓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인기상품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공간, 죽염의 고추장 및 된장가공품은 도시민들이 좋아 할 것 같았다.

실내에서 마을현황에 대한 설명 듣고 밖에 나와 우리를 태우고 온 버스가사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도시민을 많이 유치하려면 단체객들이 먹고



▲ 달오름마을의 바가지 비빔밥 점심식사

잘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적당한 가격이어야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위원장의 애쓰는 모습과 특히, 위원장이 추진 중에 자기욕심을 챙기려 들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솔한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다음코스의 사천 대밭고을을 향했다. 이동 중에 알게 되었는데 대밭고을은 강춘성 회장의 고향이자 수십 년간 꿈을 펼쳐 놓은 곳임을 알았다.



▲ 대밭고을에서의 뗏목생태체험

대밭고을에 도착한 우리는 해안가 나지막한 야산에서 내렸다. 강춘성 회장은 이곳은 20여 년 전에 나무 한그루 없는 황무지 야산이었다는데 두과식물 칩과 아카시아 또 대나무를 식재하여 농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산에 닭을 방사하여 키우고 유정란을 줌은 체험은 인기가 많다고 했다. 이 모습은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인상적 이었다. 밑에는 저습지가 있었는데 이곳을 파내어 수로를 만들고 뗏목을 띄워 뗏목타기 체험을 하고, 파낸 흙으로 밭을 만들어 옥수수 등을 보름 간격으로 심어 옥수수따기 체험을 연중 계속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감탄 할 수밖에 없었다. 거의 버려진 땅을 이렇게 자원화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우

리는 뗏목에 올라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5만평 정도 넓은 면적의 대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밭 안에 숲가마를 만들고 찜질방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 대나무밭 산책로,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 내방객들에게 판매하는 것 등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업들을 선구적으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밭을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KBS방송국에서 대나무수액을 이용하여 고추장 담그는 것을 취재하고 있었다. 지금 인기가 별로인 대나무를 이렇게까지 이용하고 자원화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놀랐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건물로 이동했다. 그 건물은 3층 건물인가 싶었는데 위층은 민박객들이 묵고 일층에서는 가족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은 대통밥과 농장에서 수확한 10여 가지 산야초로 만든 반찬이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 거기에 백숙이 함께 하니 다시 한 번 이 맛을 찾아 가고 싶어진다. 이곳에서 우리는 보성 삼수마을로 향했다.

삼수마을에 도착하니 어둠 속에 커다란 한옥 신축 건물이 우리를 반긴다. 우리가 첫 손님이라한다. 나중에 들으니 이집을 짓기 위해 1억5천이 넘게 들었다고 한다. 한옥건물이 너무 좋아 정부보조금 대부



▲ 보성 삼수마을 녹차밭 전경

분을 여기에 투자했구나 싶었다. 역시 우리나라사람에게는 한옥이 최고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삼수 마을에서 준비한 음료를 들고 위원장님의 마을소개를 듣고 각자 오늘저녁 묵어야할 민박집으로 몇 명씩 나뉘어 짐을 풀었다. 민박집 역시 새로 신축한 것이었다. 다음날 마을을 둘러보니 도시민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마을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한 마음으로 수고를 하는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10여 호 한옥으로 10여 평 이상의 신축된 별채의 민박객들을 위한 공간은 우리를 압도하였다. 호당 보조금 외 몇 백만 원씩 초과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위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거쳐 보성녹차밭을 둘러 본 후 장흥 쇠똥구리마을에 도착하였다.

쇠똥구리마을에서는 야생식물을 규모 있게 식재하여 체험객들에게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장흥에서 새농촌 가꾸기를 실천코자 애쓰는 주민분들의 이야기와 위원장의 마을 현황을 듣고 식사를 했다.

관산에서 마을가꾸는 모습을 보고 나주 노안마을(이슬촌)로 이동하던 중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와보랑계박물관에 잠시 내려 체험객을 유치하기 위해 3천 여점의 생활민속품과 전라도 사투리 등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는 나주 노안마을에 예정시각보다 상당히 지난 시간에 도착했다. 여성 위원장님과 이장님의 마을소개를 듣고 깻잎을 수집가공하여 상당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박과 휴게시설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7월 12일부터 13일까지(1박2일)의 현장견학코스의 답사를 마쳤다. 7월 26일에 서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필자를 포함 전남 강진 일행 3명은 노안마을에서 내렸다. 갈수록 어려워가는 농촌현실, 각자 저마다 도시민을 유치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애쓰는 모습, 지역을 지키기 위한 주민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필자는 새로이 각오를 다졌다.



▲ 제6기 최고지도자과정 수강생의 2차 현장견학 단체사진